

다산포럼

‘그들’의 선거와 ‘우리’의 삶



김동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씨가 자살했다. 그는 금속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으로부터 11차례 고소를 당했고, 8번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3월 14일 회사 측이 3차 징계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자 집을 나간 후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는 영역회사인 창조건설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유성기업의 조합원 손해배상 소송, 징계, 노조탈퇴 유도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회사 측이 주도하여 설립한 어용노조가 교섭대표 지위를 갖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검찰은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유성 금속노조 조합원 반수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직업 집단 중 통상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소방공무원의 5배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결국 지난 2011년 이후 유성기업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삶은 매일이 ‘전쟁 상태’였고 노동부, 검찰, 법원,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은 ‘다른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너무 흔한 일이라서 별로 충격도 주지 않는 한 사람의 자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35%는 경쟁사회, 18.4%는 양극화사회라고 답을 했고, 평등사회나 공정사회라고 답한 사람은 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사회의 갈등이 단절·원한·반감·단죄의 감정 등 극단적 트라우마 상태로 빠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매우 심각한 우울증 및 트라우마 상태에 있다는 보고가 많고, 이것이 11년째 한국이 OECD 자살률 1위의 고공 행진을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사회생활에서 극도의 불공정감과 원한·분노를 갖고 있으나, 개

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 많은 한국인이 부당한 일을 겪거나 억울한 처지에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관청·정치권에 호소해 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치·정당·선거라는 것은 다수 국민의 가장 심각한 고통을 해결하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 67%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하며, 청년층의 투표 참가율도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권이다.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2위 이하의 표를 합친 것이 모두 사표가 되고, 이런 한계를 교정하려고 만든 비례대표 의석수도 전체의 4분의 1도 안 되며, 이번 그 비례의 공천마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 19대 국회의원 중 정몽준 의원을 빼면 299명의 재산 평균은 28억4342만 원이다. (18대 국회 평균 재산은 26억4384만 원) 이번 선거에서 각 당 비례대표들의 재산 평균은 24억 원이라고 한다(새누리당 평균은 41억 원, 국민의당은 23억 원, 더민주당은 12억 원, 지역구 출마자 포함하면 평균 23억 원). 2015년 현재 가구주 전체 재산 평균이 2억8천만 원이니까 거대 정

당의 비례 및 지역 후보들은 평균적인 국민들보다 9배나 부자인 셈이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의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회는 자산 상위 1% 사람들 로 채워질 것이다. 국민의 평균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상위 1%에 속한 부자 국회의원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11번이나 고소를 당한 일도, 온갖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결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런가, 거대 여야 정당들의 정책이나 후보자 개인 구호에서도 일터에서의 이런 불공정과 괴롭힘을 시정하겠다는 목소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선거 참여는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 지역의 일상 정치활동 부재,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생색내기 비례대표 의석, 하향식 공천, 그리고 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세력화 등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는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선거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면 사회적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도 견줄 수 없는 위기 상태에 빠질 것이다.

기고

통합체육회에 거는 기대와 과제



윤이중
전남대 체육교육과 명예교수

한·일 월드컵(4강) 등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면서 우리나라가 무역수출국 10위권에 진입하는데 체육의 공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한편,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정부가 ‘호돌이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모두가 체육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생활체육의 근간을 이루었고 오늘날 생활체육이 국민건강복지의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제 국제대회 성취위주의 스포츠강국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스포츠선진국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대를 요구로 인식하고 있다.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체육회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을 생활화하도록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생활체육회는 그 전문성이 다름으로서 통합이후 체육회의 운영 면에 있어 다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명세되어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양 단체들이 상호 협력·보완한다면 광주가 문화·관광·스포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크다. 광주는 타시도가 갖지 못한 스포츠 관련 자랑거리가 많은 도시라 할 수 있다. 광주는 2002년 월드컵 ‘4강신화’를 이룩한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하고 있고, 프로야구팬 피인시리즈 V10을 달성한 바 있으며,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 개최 등은 광주가 스포츠관광도시의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다.

통합된 시체육회의 기대효과로는 양 단체의 두터웠던 장벽이 해소되면서 다양한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것이며, 각종 스포츠대회를 엘리트 선수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함께 참가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스포츠축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면 은퇴한 엘리트선수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전문기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선순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독일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육성 지원하고 있는 전국 30여 개의 K-스포츠클럽

이 통합 체육회가 출범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K-스포츠클럽은 프로선수를 꿈꾸는 어린이부터 다양한 연령의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기 위한 스포츠클럽이다. 광주는 현재 북구에 1개소 K-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체육회가 광주를 선진국형 스포츠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구에 1개소씩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체육회는 학교체육과 청소년스포츠클럽 활성화와 대학을 수립하여 공부하는 운동선수의 육성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합체육회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각 종목별 연합회(생활체육회)와 연맹(체육회)간의 통합문제이다. 아직 통합되지 않은 회장을 9월까지 선출해야 하는데 회장의 중요한 덕목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성을 잘 이해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시민이 바라는 스포츠단체로 이끌어 갈 훌륭한 리더십이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체육회는 전문성이 다르지만 일체감을 갖고 어떻게 하면 광주 시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 자존감, 행복감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지혜를 모아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정춘 특·특

도심 한 가운데에서 열리는 봄 축제



김용현
ACC 대학생 기자·전남대 지리학과 4년

축제 주인공은 바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지난해 11월 말 공식 개관한 문화전당은 개관 이래 첫 봄을 맞아 봄 축제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번 봄 축제는 지난날 26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 6주간 매주 토요일 열린다.

이름도 재미 있다. 도심에서 만나는 봄(Spring)에 공연과 전시 같은 문화생활을 봄(seeing)으로서 문화전당이 봄(boom)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담아 ACC 봄마당 축제 ‘봄.봄.봄’이다. 축제 이름에서부터 다른 봄 축제들과 다른 전당만의 색깔이 묻어 나온다.

도심 속에서의 축제, 봄을 맞이하기 위해 마히는 도로 위 차를 몰고 타지역까지 다녀오느라 지친 상춘객들에게 문화전당은 승통을 타줄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자리 잡아 편리한 전당이 이제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실제 문화전당 개관 이후 주변에 위치한 동명동과 충장동 상가들은 개관 이전에 비해 관람객이 들어 상권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린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동명동의 눈부신 발전이 눈에 띈다.

이곳은 작가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터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민과 관광객에게 이곳 카페거리는 이미 유명 관광지가 됐다. 구도심의 복잡한 인파를 피해 동명동을 찾아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도심에 활력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문화전당의 이번 봄 축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뿐 아니라 놀거리와 먹을 거리를 충족시켜줄 플라마켓도 준비되어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대인예술아시아 전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시민들의 봄 날들이, 데이트코스로서 전혀 손색 없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광주에서 봄을 맞기가 힘들었다.

봄꽃 축제를 위해 시외까지 이동하는 불편이 따랐다. 자가용은 물론, 용돈도 넉넉지 못한 학생 입장에서 즐겁만한 곳을 찾아 떠날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유독 이번 문화전당 봄 축제가 반갑다.

이렇다할 관광지가 부족한 광주가 진정한 문화수도도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문화전당 역할이 중요하겠다. 청년들은 물론, 모든 광주시민, 관광객들이 문화전당으로 몰려 들어야 한다. 전당 앞 광장은 늘 활기가 넘쳐야 한다. 이번 봄 축제를 계기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최근 10여년간 광주 도심 한가운데서 하얀 공사장 커튼에 가려 시민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던 이곳. 이제는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진정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해 광주의 ‘봄꽃’처럼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社說

‘그 밤에 그 나물’ 空約만 난무하는 선거전

선택 4·13 D-8

4·13 총선에 나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저마다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텃밭 다툼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일제히 공약을 선보였다.

대개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증대’ 같은 민생을 다독이는 방안이 공약의 주를 이룬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하고 광주역 개발, 군 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같은 현안 해결도 단골 메뉴다. 부자 증세와 무상교육 실시에다 이색적인 ‘주 52시간 칼퇴근법 제정’, ‘부정 비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으로 시선 끌기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일자리 만들거나 현안 추진은 선거 때가 아니라도 늘 들어왔다. ‘그 밤에 그 나물’인데다 재탕·삼탕 우려먹기 행태의 반복이다. 크게 기대하진 않았

한 두 개쯤 있으려나 좋 그랬던 유권자들이 실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 술 더 떠 국가 기관 신설 및 유지, 대형 문화시설 신설에다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같은 황당한 구호도 난무한다. 여기에서 ‘황당한 구호’라 하는 것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순전히 표만을 얻기 위한 전형적인 사탕발림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지역에서 두 야당이 사활을 걸고 정치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공약을 차분하게 따져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날마다 치고받는 정치 공방에 온통 이목을 집중하다 보면 누가 무슨 공약을 제시했는지 파악하고 있다는 게 더욱 이상한 일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 해도 유권자들은 이제 어떤 후보가 얼마나 알찬 공약을 내놓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때다. 정당들의 정치 놀음에 같이 휩쓸리다만 나중엔 빈껍데기 공약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거철이라고 야당 대표 고향마저 바뀌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표가 호남에서 2주째 주말유세를 갖고 민심의 흐름을 둘러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국민의당이 ‘전체 석권’을 목표로 잡을 만큼 텃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 대표는 옛그제 전주 덕진공원에 있는 ‘감병로 동상’을 예정에 없이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순창군 북흥면에 있는 조부의 생가를 공식 일정으로 찾았다. 김 대표는 ‘할아버지 동상이 어떻게 생겼나 보기 위해 가는 것’ 혹은 ‘광주 가는 길에 순창의 생가에 들렀을 뿐’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동안 열린 여러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김 대표에 대해 수차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소개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인터뷰 등을 통해 “광주가 아니고 서울에서 태어났다” “조부가 순창 출신일 뿐 부친도 서

울이고, 한국전쟁 때 광주에 피난을 가서 1년 반쯤 있었던 것이 전부인데 인사철마다 호남 묘으로 이류가 오르내리는 것이 우습다”고 해 온 김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의식한 비난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날 27일 광주 방문에서도 자신을 ‘뿌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물론 김 대표가 6·25전쟁이 발발한 뒤 6학년 때 광주로 피란을 와 서석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서중을 1년 반 정도 다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김 대표가 자신의 호남 연고를 부인해 왔다는 점이다. 김 대표가 과거 자신의 발언을 반박하고 이제 와서 호남 연고를 강조한 것은 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 장교 전력을 둘러싼 반감을 완화시키고 텃밭 민심을 달래려는 전략일 것이다. 하지만 선거 때가 되면 고향마저 바뀌는 제1야당 대표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無等鼓

나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화에서라면 한번쯤 봤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무라 해서 전혀 소동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페터 볼레인이 쓴 신간 ‘나무수업’을 읽다 보면 우리가 나무와 숲 생태계에 대해 너무도 무지함을 자각하게 된다. 저자는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뮐멜 조합 산림경영 지도원으로 20여 년을 활동해 왔다.

근 허약한 나무에 영양분을 나눠 준다고 한다. 특정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나무껍질을 벗겨 내도 그 나무는 쉽사리 죽지 않는다. 이웃 나무들이 얽히고설켜 땅 밑 네트워크를 통해 그 나무뿌리에 영양을 공급해 생존을 돕기 때문

이다. ‘나무 공동체’는 “한 나무의 삶은 그것을 둘러싼 숲의 삶만큼만 건강하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는 주고, 가난한 자는 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조건 없이 서로먹는 기린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 기린이나

오늘은 식목일이 다. 지난 주말 선산(先山)에 수십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비록

나무의 언어

로 보인다. 그러면 기린은 그 사실을 알아채고 바로 옆에 있는 나무가 아닌 100여m 떨어진 곳까지 걸어진 다음 다시 나뭇잎을 먹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임을 뜯어 먹힌 아카시아는 결코 가스(에틸렌)를 방출해 주변 동료에게 여기적이었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 즉시 옆에서 있던 나무들도 똑같이 유독물질을 일으켜 내려보내 재앙을 방지한다.” 나무의 ‘항기’가 그들에게는 표현 수단 아니라 신기하다.

지금에 키 작은 묘목이지만 수년 후에는 울창한 숲을 이루리라는 부푼 기대 속에 행복했다. “나만 잘 살겠다”고 야 등바등하는 시류 속에서 우리는 나무야 주는 공동체적인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나무로부터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무들은/ 난 대로가 그냥 짐한 채/ 새들이나 벌레들만이 거기/ 깃들인다/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까맣게 모른다/ 자기들이 실은/ 얼마나 나무에 깃들여 사는자들!” (정현중 ‘나무에 깃들여’)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